고승범의 지혜를 고대하며

박 승 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이후에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다"라고 했다.

고 위원장이 취임하자 시장에선 금리인상과 대출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했다. 매파(통화 긴축정책 선호)로 분류되던 그의 등장에 이미 시장은 향후 정책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하는 그가 취임하기도 전에 주요 은행은 신용대출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도 조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집값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다.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 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가 얼마나 많은데, 집값에 대해 우려하느냐고 자신했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강한 경고까지 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를 믿고 정책에 순응한 사람과 '빚투' '영끌'한 사람, 그리고 투기에 나섰던 부자들과의 자산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집값만 오른 게 아니다. 전세값도 크게 올랐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웬만한 곳의 전셋값은 최근 2년사이에 두 배 넘게 오른 곳도 많다. 집 소유를 포기하고 전세 사는 진짜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은 수요가 줄어 들면 공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 있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면 쉽게 해결된다. 국제 무역이든 국내 부동산 거래든 모두 금융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계부채가 1800조원(2분기 말 기준 1805조9000억원)이란 의미는 무엇일까? 전국 아파트의 상당 수는 돈을 빌려준 은행이 실제 주인이라는 의미다. 아파트담보 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은행의 이익도 늘어났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담보가치가 늘어나게 된다. 담보가치가 커지니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준다. 대출을 늘리면서 집값은 계속 올랐다.

MB정부때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된 배경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있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을 관할하는 위원장이었다. 부동산 정책은 바로 금융정책이다. 금융을 보지 않고 부동산이란 실물만 보면 어리석은 정책이 나오기 십상이다.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다. 금융당국에서 해법을 찾아야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전까지 은행 등 여신사는 주택담보대출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돈의 흐름을 부동산으로 몰고 갔다.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배경이다.

부동산은 금융이다.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하락 리스크가 커졌다. 집이 많은 투기적 수요자에게 대출을 금지하기보다는 대출금리를 높이면 된다. 실제 거주하는 전세 수요자에게는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여신금융회사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 자금은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해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면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만기 연장과 함께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해주는 금리차등화 정책도 필요하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경제정책 전문가고 위원장은 그 해법을 알고 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그가 소중히 품고 있는 가치다.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의 지혜로운 정책이 기다려진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명절엔 춤이나 추고 전이나 사 먹자

기자 수첩

김 현 정
〈정책사회부〉

누군가 내게 '이번 추석 때 뭐 했니?'라고 묻는다면 이번 연휴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시작해 '스우파'로 끝났다"고 답하겠다. 휴일 내내 엠넷의 예능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를 봤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도 부족해 무한 반복으로 돌려보는 중이다. 시간 낭비로 느껴져 지웠던 인스타그램 앱도 다시 깔아서 출연자들을 팔로한 뒤 매일 염탐하며 혼자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누군가는 이를 '스우파 과몰입 중인 상태'라고 표현했다. 뭐가 그리 감명 깊었을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각양각색의 캐릭터를 가진 여성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스우파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해 왔지만, 티브이(TV)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자연인으로서의 여성'을 다룬다. 가부장제 사회가 강요하는 여성상에 반기를 든 여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

스우파처럼 반짝이는 예능 프로그램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그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설과 추석 전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만든 '성평등 명절 사전'을 발표해왔다.

사람들은 바깥 외(外), 친할 친(親) 자를 써 외가·친가로 구분하는 것을 어머니 본가, 아버지 본가로 풀어쓰자고 했다. 과거 상전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던 도련님, 아가씨 등을 가족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이름으로 부르자고 요구했다. '각자 자신의 부모를 찾아가 인사드렸다', '명절 음식 준비 대신 부모님과 여행을 갔다', '설거지 당번을 사다리 타기로 결정했다' 등 직접 겪은 성평등한 명절 사례를 공유한 이들도 많았다.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서울시가 지난 추석 명절 연휴 기간(2019년 9월 11~18일) 시민 81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성평등 명절 체감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2%가 '전보다 성평등해졌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시민 10명 중 6명(57.6%)은 '다음 명절엔 더 성평등해질 것이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말이 있다. 현인(賢人)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쓸데없이 트집 잡지 말고, 명절엔 스우파 댄서들처럼 '춤이나 추고 전이나 사 먹자'

/hjk1@

오늘의 운세

9월 24일 (음 8월 18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마라했다. **48년생** 내리막길은 가장 성할 때 조심이 나타나니 자식을 살펴볼 것. **60년생** 도중에 지치지 말고 이치를 다시 터득해보자. **72년생** 오후 음주는 금물. **84년생** 가정불화는 참는 것이 최선의 길.

소 **37년생** 공적을 자랑하면 오히려 비난이 따른다. **49년생**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 **61년생** 긴장하지 말고 타협과 양보로 대비. **73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 **85년생**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을 실감.

호랑이 **38년생** 조심성은 어느 누구에게나 불가결의 조건. **50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보면 이익을 놓친다. **62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대화에 주의. **74년생** 가족이라도 돈 문제를 계산해보아야. **86년생** 과격하게 남의 허물을 지적하지마라.

토끼 **39년생** 재능이 있었지만 주장이 강해 재능이 숨겨져 버린다. **51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익한 정보를 얻어 이익. **63년생** 배우자의 고집으로 난감한 하루를 보낸다. **75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나가라. **87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

용 **40년생** 돈 자랑 하다 쓰지 않으면 발목 잡힌다. **52년생** 닭띠 개띠와의 거래가 잘 이루어진다. **64년생** 운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으니 기다려보라. **76년생** 소금이 필요해도 너무 짜지 않게 조화를. **88년생** 직장에서 아침부터 반가운 소식.

뱀 **41년생** 밭에 김을 메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듯 움직이자. **53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 **65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77년생** 마른 논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술술 풀린다. **89년생** 비빌 언덕이 절실히 필요하다.

말 **42년생** 썩은 나무로 어찌 조각 작품이 나오겠는가. **54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을 해 보자. **66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 하라. **78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가져오니 기분전환을. **90년생** 다음의 비상을 위해서.

양 **43년생** 사람은 바탕이 있어야하니 자녀 공부는 계속 시키도록. **55년생** 타인을 지나치게 비난하다가 위험에 직면. **67년생** 합격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 **79년생** 도박성유혹이 있는 날. **91년생** 먼저 핀 꽃이 먼저진다.

원숭이 **44년생** 성의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 적선은 깨진 독에 물 붓기. **56년생**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격언. **68년생** 인생은 마라톤이니 힘내보자. **80년생** 결단력으로 자신 있게 도전. **92년생** 극기(克己)훈련하듯 마음수양.

닭 **45년생** 교육이란 정성과 노력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 **57년생** 스스로 돕는 정신이 있을 때 남도 돕는다. **69년생**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 **81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93년생** 꾸밈없는 태도가 바람직.

개 **46년생**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8년생** 말은 하기 쉬우나 주워 담을 수 없다. **70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기다려라. **82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94년생** 가을이가면 겨울이 오는 이치.

돼지 **47년생**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 **59년생** 처음엔 서운한듯 하여도 끝없는 부모마음을 자식이 알까. **71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흘. **83년생** 친구의 가정 사에 휘말리지 마라. **95년생** 누구나 장단점은 있으니 본인 장점을 찾아서 연마하도록.

김상회의 四季

배려

"겨울이 좋아 여름이 좋아"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무척이나 변덕스럽다. 뜨거운 여름엔 겨울이 좋은 것 같고 추운 겨울엔 여름이 좋게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 따라 변덕을 부린다. 폭염이든 혹한이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본능이다. 날씨는 자연 현상이니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기 노력으로 자신의 역량만큼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음에도 세상 번뇌에 시달리다 수행의 길로 나섰다.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깨달음을 대중들에게 설법하는데 남은 생을 바쳤다.

석가가 설법에 힘쓴 것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중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해라 불리는 사바세계에서 편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자비의 실천이었다. 석가의 마음은 숭고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인본주의는 인간 자체의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하려는 정신이다. 동서고금에서 발현했던 다양한 철학들도 이런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아픔에서 벗어나 평안한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있게 위안을 줬다. 동양에서 힘겨운 민초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철학의 하나로 명리학을 빼놓을 수 없다.

눈앞에 닥친 흉한 일을 피하고 미래의 희망으로 이끈 것이 명리학이다. 그런 관점에서 명리학은 인본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도시화가 심한 현대사회는 인본주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드넓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누군가가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평화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현실에서 석가의 설법이든 철학의 판단력이든 지혜나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곁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될 만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배려를 펼쳐보자.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하는힘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4	5	6	
5								
2			3		5			
1		4				9		
		5				2		7
			8		3			9
								8
	5	3	7					

			1					
		6			3	5		
	9		6	2			7	
	7					3		5
		8				9		
1		3					8	
	4			3	8		5	
		1	9			2		
					1			

정답

4	2	6	9	1	7	3	5	8
8	7	3	2	5	6	9	1	4
9	5	1	3	4	8	2	6	7
7	1	2	8	3	4	5	9	6
6	8	4	1	5	9	7	2	3
5	3	9	6	7	2	4	8	1
1	8	7	5	9	3	6	4	2
2	9	8	7	6	5	1	3	5
3	6	5	4	2	1	8	7	9

9	4	8	1	7	5	2	6	3
7	3	2	4	6	9	1	8	5
1	5	6	3	8	2	7	4	9
6	8	7	2	4	9	3	5	1
4	1	9	7	5	3	8	2	6
5	2	3	9	1	8	6	7	4
3	7	1	5	2	6	4	9	8
8	9	4	6	3	7	5	1	2
2	6	5	8	9	4	7	3	1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78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887호		